

# 김용진 교수 中정부서 ‘우의상’ 수상

서울의대 김용진 교수(소아흉부 외과)는 지난 14일 중국 중앙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상인 ‘우의상(友誼賞)’을 수상했다.

우의상은 문화, 교육 및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경영자 또는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중국 최고 권위의 상. 김용진 교수는 2000년부터 연변, 하얼빈 등에서 3000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선천성 심장병환아들을 수술했다.

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김 교수의 이 같은 공로를 인정, 지난 해 9월 우의상 수여를 결정했다. 김용진



교수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하얼빈 아동병원에서의 의료봉사 일정을 통해 14일 오전 하얼빈시 우의궁에서 장밍(姜明) 상무부시장으로부터 상을 수상했다.

권미혜 기자